

광양시 오락가락 행정 신뢰 '뚝'

광양제철 동측 원료부두 진입로 관리권 포스코에 줬다 초소설치로 민간인 출입 어려워지자 2년만에 허가 반복

광양시가 포스코 광양제철 동측 원료부두 진입도로 유지관리권을 포스코에 내줬다 2년여만에 허가를 반복해 행정의 신뢰성 부재를 드러냈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 10월 광양제철 자원화단지부터 항만초소까지 3.3km 구간에 대해 출입통제 관리 및 도로침하, 파손, 배수문제 등 사실상 도로 전반에 대한 관리권을 광양제철에 허가해줬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도로의 출입 통제를 위해 초소가 설치돼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까다롭다고 지적하자, 시는 지난해 9월 진입도로 통제 해제 요청공문을 광양제철에 보내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켰다.

광양제철은 "광양시가 원료부두 진입도로에 대해 유지허가를 해줘 그동안 도로포장 및 배수로, 초소 설치 등에 10억여 원을 들여 보수해 사용하고 있는데 초소 철거 및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 광양시, 포스코, 시민단체간 불협화

음으로 치달은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지역 발전 저해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31보병 사단은 원료부두 출입통제에 대한 작전성 검토에서 도로 인근에 원료하역 부두, LNG 발전소, 하역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적의 도발 및 테러에 의한 폭발물 취약요소가 내재해 있어 시설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31보병 사단은 "통합 방위법" 5장 21조와 시행령 34조, 35조에 근거한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적 또는 테러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민간인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토 결과를 포스코에 통보해 왔다.

시민 이 모씨는 "행정추진의 기본은 공정성과 신뢰가 원칙인데 신중치 못한 행정으로 인해 자주 신뢰를 잃으면 광양시 각종 공약사업도 믿을 수 없게 된다"면서 "각종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제철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수 등을 위해 15억여원이 소요될 상황이었다. 광양제철이 자체관리를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돼 승인한 것"이라며 "국가 중요시설로서 제반 여건이 있다면 협의해 계속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청솔모야 솔방울을 맛았니?”

청솔모 한 마리가 지난 4일 강진군청내 소나무에서 솔방울을 깊이 먹고 있다. 다람쥐와 포유류인 청솔모는 잣나무·상수리나무 종자를 비롯해 밤·도토리 등의 나무 열매를 잘 먹는다. <강진군 제공>

‘천년의 신비’

‘제40회 강진 청자축제’ 7월 28일 개막



‘제40회 강진 청자축제’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 동안 개최된다.

강진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에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자 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축제위원회 중심의 축제 ▲청자판매 중심의 축제 ▲홍행 거점의 다각화라는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올해 강진 청자 축제 활성화와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축제 기획서 작성과 공연 행사,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도맡아 추진할 기획분과, 명품전 계획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맡

8월 5일까지 9일간
민간주도 축제 추진

은 도자기 분과, 음식관과 특산물 전 운영, 주차장 관리 등을 운영할 운영분과 등 3개 분야로 나눠 민간 주도축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시, 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 5개 부문 105개 단위 행사와 여 름 축제 물놀이 시설 확충, 어린이 방학축제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 도를 높이기로 했다.

마삼섭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3개 분과 27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나주시,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27억 지원

1지역·1품목 처리비용 2015년까지 30%로

나주시가 유통업체 대형화와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농업인과 판매조직을 연계하는 ‘공동선별 출하조직’ (공동 출하조직)을 적극 육성한다.

농산물 공선출하 조직은 생산농가와 판매조직을 연계해 출하 물량을 규모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출하방식으로, 읍·면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많은 생산량에 비해 품질관리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 과거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후진적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도 나주시지역 14개 농협을 통해 판매한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1700억원 가운데 농협을 통한 공선출하 농산물은 300억원 규모로 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와 멜론이 250억원

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꾀꼬리 등 채소류는 5%에 불과할 정도로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어 공선출하 품목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1 지역·1품목’ 이상 공선출하 조직을 육성, 오는 2015년까지 원예농산물 주요 10대 품목의 처리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30%까지 높이고, 매년 5억원 이상씩 2015년까지 27억원의 시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

으로 생산량은 많으나 상품관리가 미흡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총 매출액 대비 10%이내에서 공동선별·공동출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선별비와 포장재비, 원물 운송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전문조직이 담당하는 공동출하 체계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철희기자 chjung@

참다래 후숙기 개발

보성군, 현장적용 시연회·시식회

참다래는 맛과 영양소가 가장 우수한 과실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후숙(後熟)을 거쳐야 제맛을 맞출 수 있다.

전국 최고의 참다래 주산지인 보성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참다래 후숙기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군과 전남 참다래산학연협력단(단장 목포대 박용수 교수)은 최근 조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다래 재배 농가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다래 에틸렌 후숙기 개발

및 후숙과에 대한 현장적용 시연회·시식회를 가졌다.

전남 참다래 산학연협력단은 지난 5년간 에틸렌 처리를 통한 후숙 연구를 통해 기존 후숙 참다래에 비해 당도가 0.8% 높아지면서 총 페놀함량 증가로 향산화도 25%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후숙기 처리를 거쳐 이틀후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후숙과를 개발, 참다래 유통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임동식 소장



보성군과 전남 참다래산학연협력단은 최근 조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다래 에틸렌 후숙기 개발 시연회를 가졌다.

은 “올해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법인에 참다래 에틸렌 후숙시설과 고품질 과실 기반을 조성하면 맛과 기능성이 차별화된 후숙과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화교급식 및 병원 환자식 등의 새로운

시장 확보가 가능해져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의 참다래 재배 면적은 156ha로, 연간 3200t을 생산해 9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강진군,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전국 우수상

사업비 8000만원 확보

강진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로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해 공동 제조장과 판매장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한 청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관광객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장을 설치하고,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



로 신상품 개발과 국내외 마케팅 활동은 물론 민간 자생력 강화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해 ‘월빙 전통도자산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강진 청자 7점 반상기 효(孝)·(사친)’를 출

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청자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명품청자 토요일’을 매주 토요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김정식 유통팀장은 “올해까지 도예촌에 신규공방 40개소를 유치하고, 향후 2단지 조성으로 100개의 공방을 유치해 청자산업의 메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샴(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